

動向分析

經濟一般

● 개 관

1997년 1/4분기 중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의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설비 및 건설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.4%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. 이는 전 분기의 7.2%보다 1.8%포인트 낮아졌으며, 지난 1993년 2/4분기의 4.9%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(표 1 참조).

산업별 생산동향을 살펴보면,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. 제조업은 경공업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중화학공업의 신장세도 둔화되어 5.7% 성장에 그쳤고, 서비스업은 도소매업, 개인서비스업 등이 부진하였으나 통신업, 금융·보험업 등이 호조를 보여 7.4%의 성장을 기록하였다. 건설업은 민간부문 건설이 부진한 데다 그동안 건설업 성장을 주도해 온 토목건설과 정부부문 건설의 성장률도 크게 낮아져 1.9%의 '마이너스' 성장을 기록하였다.

수요측면에서는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. 민간소비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증가세 둔화로 4.4% 성장에 그쳤고, 고정투자 역시 건설 및 설비투자가 모두 저조하여 성장률은 -2.0%로 전년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. 그러나 상품수출(14.6%)은 전기·전자, 철강, 석유화학제품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출물량이 늘어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.

● 산업별 생산

1997년 1/4분기 중 산업별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농림어업은 어업생산이 감소(-0.1%)하였으나 농업(5.5%)과 임업생산(2.2%)이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.0%의 성장률을 보였다.

둘째, 제조업의 생산은 5.7% 증가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성장률이 2.0%포인트 감소하였다. 이 중 경공업은 의복, 신발 등의 생산이 수출부진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고무 및

〈표 1〉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

(단위 : %, 10억달러)

	1995	p 1996	p 1996				p 1997
			1/4	2/4	3/4	4/4	1/4
국내총생산(GDP)	8.9	7.1	7.8	6.9	6.6	7.2	5.4
산업							
제조업	10.8	7.4	7.7	6.5	7.0	8.4	5.7
건설업	8.6	6.7	10.4	6.7	7.5	3.7	-1.9
서비스업	10.1	8.2	8.3	8.5	7.5	8.4	7.4
수요							
민간소비	8.3	6.9	7.7	7.4	6.2	6.5	4.4
고정투자	11.7	7.1	8.2	5.2	8.0	7.2	-2.0
물가							
소비자	4.5	5.0	4.9	5.1	5.2	4.8	4.7
생산자	4.7	2.7	3.1	1.8	2.3	3.5	3.7
교역							
경상수지	-8.9	-23.7	-4.7	-5.2	-7.5	-6.4	-7.9
무역수지	-4.7	-15.3	-2.5	-3.0	-5.5	-4.0	-5.6
수출	125.1	129.7	31.5	33.2	29.6	35.5	29.8
수입	135.1	150.3	35.7	37.1	37.1	40.5	37.2

주: 1)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, 운수·창고 및 통신업, 금융·보험·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, 수입세를 포함.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.

2) 수출은 FOB, 수입은 CIF 가격이며 통관기준.

3) 생산활동 및 지출항목별 증가율은 1990년 불변가격 기준.

4) p는 잠정치임.

자료: 한국은행, 『1997년 1/4분기 국내총생산(잠정)』, 1997. 5.

_____, 『주요 경제지표』, 1997. 5.

통계청, 『한국통계월보』, 각호.

플라스틱, 피혁·모피제품의 생산도 줄어 전체적으로 5.0% 감소하였다. 한편 중화학공업은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수송장비의 생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·전자(23.8%) 및 화학제품(9.7%) 등의 생산이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8.7%의 큰 성장률을 나타냈다.

셋째, 건설업은 1.9% 감소하여 성장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12.3%포인트 하락하였다. 정부건설은 지하철 건설이 감소한 데다 도시 토목 및 상하수도 건설도 부진하여 0.8% 증가에 그쳤고, 민간건설은 주거용·비주거용 건설이 모두 감소하고 토목건설도 부진하여 3.3%가 감소하였다.

넷째, 서비스업은 7.4% 성장하여 타산업에 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.9%포인트 감소하였다. 운수·창고 및 통신업(14.2%)과 금융·보험·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(7.9%)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, 특히 통신업(21.8%)은 이동통신부문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정보통신, 국제전화의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. 그러나 중소기업이 많고 경기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(4.9%)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(3.4%)의 신장세는 크게 둔화되었다.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기회 축소로 상당수의 노동력이 개인서비스업으로 유입되고 그 결과 성장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● 소비 및 투자

1997년 1/4분기 중 주요 구성항목별 소비 및 투자동향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최종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4.5% 신장되어 성장률이 전년동기(7.5%)에 비해 3.0%포인트 감소하였다. 이 중 민간소비는 가정용 전기기기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감소한 데다 의복 및 신발 등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도 둔화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보다 3.3%포인트 감소한 4.4%의 성장률을 보였다. 정부소비도 10% 절감운동에 따른 행정지원인력의 감축 및 경상경비 절감의 영향으로 4.6% 증가하는 데 그쳤다.

둘째, 고정투자는 설비투자(-1.6%)와 건설투자(-2.5%)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.5% 감소하였다. 경기선행지표인 고정투자가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최근 경기불황의 저점이 언제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.

● 수출입 동향

1997년 1/4분기 중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,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.2%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8.8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.¹⁾

수출의 경우 상품수출은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석유제품, 화학제품, 전기·전자 및 철강제품 등의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14.6% 증가하였고, 용역수출은 화물운임 수입 및 통신서비스 수입의 증가에 힘입어 18.1%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. 한편 수입 중 상품수입은 설비투자 부진으로 조립금속·기계장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운송장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장률이 8.4%로 낮아졌고, 용역수입도 해외여행 경비 등의 증가세 둔화에 힘입

1) 수출과 수입을 통관기준으로 살펴보면, 수출은 298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에 비해 5.7% 증가하였고, 수입은 37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.2% 상승하였다.

어 11.3%의 증가에 그쳤다.

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수주가 늘어나는 등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불황과 더불어 반도체 가격을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출가격회복 지연, 엔화 약세의 지속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수입에 비해 수출이 부진하여 무역적자 및 경상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.

● 물 가

1997년 1/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4.7% 상승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다. 이는 연초의 납입금,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교육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에 따른 초과수요의 완화와 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.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 가격의 하락도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.

한편 생산자물가는 수입물가의 상승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.7% 상승하여 작년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었다. 그러나 3월부터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점차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